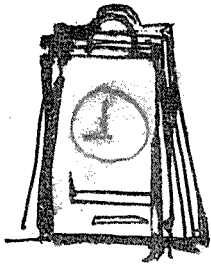


# 기관지 천식 환자의 사망예방



이 상 용

## 기관지 천식의 정의

기관지천식이란 가역성 발작적 호흡곤란을 주소로하는 기관지질환으로 과민현상을 토대로하는 경우가 많고 기관지의 수축 협소 점조한 객담 내지는 점액전으로 전좌을 일으키고 기관지점막의 부종으로 그 전강이 더욱 좁아진 상태를 말한다.

기관지천식의 종류는

① 소아에서 많이 보는 천식성기관지염을 위시하여

② 성인에서 볼수있는 내인성(감염성) 연소자에서 보는 외인성천식 만성 및 중증천식(Status Asthmaticus)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에서 천식환자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는것으로는 역시 중증천식을 들수있다. 중증천식이라 함은 만성형으로서 천식발작이 통상적인 치료 즉 기관지확장제라든가 거담제등으로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스테로이드(Steroid)등의 강력한 치료제가 아니면 듣지않는 형을 말한다.

이런 경우에 기관지나 모세 기관지내에는 점조한 객담이 전좌을 형성하고 기관지는 계속적인 수축을 일으키고 기관지점막은 부종이 심해져서 객담의 객출이 불가능해져서 급기야는 환자가 질식사상태로 사망하게 된다. 이런 환자의 부검을 해보면 소기관지 기관지내에 점조한 객담이 꽂차있어 일전질식사 라는것을 확인할수 있게된다.

이런 상태하에서는 기관지확장제

나 거담제에 대해 효과가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런 상태가 심한 천식환자에서 볼수있는 현상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기관지 확장제 (Iso-proterenol) 의 과다흡입이나 스테로이드제의 남용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경우도 적지않다. 상기한 약제들은 천식치료제로서 불가결한 약제이지만 그 사용에 있어 적절을 기하지 않으면 불의의 해를 입을때가 있다. 그래서 이 중증천식을 치료하는 것이 천식환자로 하여금 죽음에서 구해내는 길이 될것이다.

## 9 가지 치료 방침

그 치료방침을 보면

첫째 : 확실한 기관지 천식발작이라는 진단을 숙히 내릴것. 이에는 병력과 이학적소견을 세밀히 분석해야 할것이다.

둘째 : 거담이 안되고 기관지내가 점조한 점액으로 꽉차있고 건조한 상태이므로 주사를 통해서 충분한량의 수액을 하는것이 좋다. 주 5% 포도당액을 주사하여 거담이 용이하게 해줄필요가 있다.

셋째 : 구급적인 목적으로 스테로이드제의 일종인 「하이드로 코티손」 (hydrocortisone) 을 정맥내로 100~300mg 을 12시간내에 되도록 빨리 주사해 주면 75% 정도의 환자는 부작용 없이 구명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

넷째 : 지나친 진정제 사용은 금물이며 특히 몰핀등은 금기이다. 이

는 호흡중추를 마비시켜 거담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 일반적인 기관지 확장제로서 「산틴(Xanthine)」제인 「아미노피린(Aminophylline)」을 정맥내로 250~500mg 주사하고 필요하면 교감신경 흥분제인 「에피네프린 (epinephrine)」도 0.3~0.5ml 를 피내로 주사해 준다.

여섯째 : 기관지감염에 대해서는 적당한 항생제를 투여한다.

일곱째 : 강력한 양압흡입기를 사용해서 적극적인 기관지확장제를 흡입시켜 호흡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여덟째 : 이상의 방법으로 기포가 안열릴때는 기도에 주브를넣는다던가 기관절개를 해서 호흡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흡입기를통해서 객담을 흡출해낼 필요가 있다.

아홉째 :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가 불안상태에 놓여있을 때는 적당한 진정제가 필요할 때도 있다.

최근 수년간 천식발작 예방 목적으로 개발된 학명 Disodium Cromoglycate (Cromolyn Sodium) 상품명으로 「인탈(Intal)」 또는 「프레넬(Frenal)」이 시판되고 있는데 분말형으로 되어있다. 학술적으로 말하면 모반세포(Mast Cell)에서 유리되는 「히스타민」을 억제해서 발작을 미연에 방지하므로써 각광을 받고있다.

그러므로 치료적목적 보다는 특히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다. 이 약제는 특히 청년이나 어린이들에 있어서 외인성천식에 효능이 많

고, 스테로이드제나 기관지 확장제의 사용량을 주릴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발작이 잦은 환자에서 상술한 조건에 맞는 경우에는 일단 사용해 볼만한 약제이다.

이 약은 캡슐에 들어있는 분말로 매 캡슐당 20mg 씩 들어있고 보통 1일 3~4회 한캡슐씩을 특수고안된 분무기를 통해서 기도내로 흡입한다. 빠르면 1주일 이내에 효과를 거둘수 있고 다른 기관지확장제의 병용을 3~6주 후에는 줄일수 있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환자에 따라서는 3~5개월의 투여기간을 요할 때도 있으니 대개는 그안에 기관지 확장제나 스테로이드제의 양을 줄일수 있거나 중단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이 약은 장기간 투여해도 두통 심계항진등 기관지확장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볼 수 없으며 효과감퇴 습관성등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방효과는 보고자에 따라 다르지만 어린이에서 가장 좋아서 60~80% 성인에서 50% 정도에 이르고 있다.

## 사망 예방의 대책

다음에 참고적으로 영국에서의 천식환자의 사망율을 보면 전체 천식환자의 3%에 이르고 있으며 천식에 의한 급격한 사망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전술한 바와같이 기관지확장제

의 (특히 Isoproterenol) 과용 스테로이드제의 남용 기관지 감염의 불충분한 치료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 케니시링 아스피린등 약제에 대한 과민현상이 천식을 악화시켜서 질식사할 조래하는 때가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때 천식환자에서의 사망예방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기관지천식의 진단을 정확히 할 것이며

둘째: 천식의 증상이 심해져서 기관지확장제 또는 거담제 스테로이드제등으로 치료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생기기 전에 충분한 치료를 가할것.

셋째: 기도감염의 우려가 있을때 적당한 항생제로 감염을 조기 치료할것.

넷째: 천식발작예방제의 사용으로 발작을 미연에 방지해 볼것.

다섯째: 기관지확장제나 스테로이드제의 남용을 피할것. 특히 어린이에서 그렇다.

여섯째: 원인이 밝혀졌을때는 탈감작요법을 해서 치료를 게을리 하지 않을것.

“탈감작요법”이란 계속적으로 원인이 되는 항원액을 주사해서 면역성을 부여해 주는 방법.

일곱째: 환경위생 가족간의 화목 정신위생등을 도모할것.

<필자=연세의대 내과 교수·의박>